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 [2010. 6] : 113~147

브라질 독서인구의 성향과 서적을 통한 한국 문화의 진출 방안 연구

박 원 복*
(Park, Won-Bock)

〈Abstract〉

Um estudo sobre as tendências de leitores brasileiros e os possíveis meios para o avanço da cultura coreana no Brasil por meio da divulgação de livros coreanos

Este estudo tem por base teórica a transculturação que tem sido desenvolvida desde a década de 1940. Conforme os estudiosos da teoria a transculturação foi e continua sendo um fator essencial de progresso cultural-civilizatório das nações e dos Estados desde os tempos remotos. Com base a esta concepção, o presente estudo visa buscar possíveis medidas ou canais pelos quais poderia ser mais incentivado o intercâmbio cultural entre a Coreia e o Brasil que comemoram neste ano 51 anos de relações diplomáticas. Em particular, o presente estudo quer dar maior atenção à possibilidade de divulgar mais a cultura coreana no Brasil por meio de publicação de livros coreanos traduzidos para português ou escritos em português.

Para tanto, este estudo começa por analisar sobretudo a situação de mercado de livros do Brasil e as características de leitores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E-mail: wbpark@snu.ac.kr

brasileiros. E utiliza principalmente recentes dados estatísticos divulgados e compilados no <Retratos de Leitura no Brasil> pelo Instituto de Pró-Livros e os do IBGE. E acaba achando um meio apropriado para a divulgação da cultura coreana ao povo brasileiro, que é Internet, pois este é um dos meios que estão sendo cada vez mais procurados pelos leitores brasileiros que procuram satisfazer suas vontades de adquirir e aprimorar diversos conhecimentos.

[Key Words: Mercado de Livros do Brasil/ Transcultura/ Características De Leitores Brasileiros/ Atual Situação Da Internet Brasileira/ Divulgação da Cultura Coreana no Brasil]

[주제어: 브라질 책 시장/ 트랜스컬처/ 브라질 독서인구의 속성/ 브라질 인터넷 현황/ 한국문화의 브라질 전파]

Ⅰ. 들어가는 글

인류문명의 역사는 상호 교류의 역사이다. 그 흥망성쇠는 문명 간의 교류(영향과 수용 혹은 도전과 응전)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세기말부터 서구가 중남미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하면서 구축한 이른바 '세계체제'(월러스틴, 2005)라는 것 역시 동양과의 교류를 통해 축적한 문명의 이기와 사상적 풍요(예, 인도문명) 덕분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중엽부터 통문화(transculture)라는 이론의 학술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브라질의 옥타비우 이아니는 그의 저서 Enigmas da Modernidade-Mundo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통문화(transcultura)[1]는 말

그대로 문화들(culturas)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통해보면 문명 간의 교류도, 비록 강약의 차이가 있었을 지 언정, 언제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가 다른 국가나 민족의 문화와 교류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호성을 띠는 것이었다. (Octávio Ianni, 2003: 65~119).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류의 역사, 특히 15~6세기에 시작된 서구의 팽창주의적 해외 영토 확장 이래 세계의 역사는 어느 국가나 민족, 사회의 문화가 다른 국가나 민족, 사회의 문화에 대하여 일방적인 영향을 행사해온 역사가 아니라 서로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수용과 흡수 / 저항과 배척이라는 상호 작용 과정을 거쳐 서로에게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이룬 역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적 제 현상의 상호교류 혹은 영향과 수용을 연구하는 비교문학적 시각에서 보면 통문화를 매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적이다. 특히 통문화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매개물을 찾는다면 '번역된 서적이나 기타 출판물'이 될 것이다. 비교문학자인 이브 슈브렐은 "번역된 텍스트들은 문화적 교환의 중요한 분야를 이룬다."[2]면서 이 분야를 비교문학의 주요 연구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서적을 포함하여 "편집자들과

---

1) "주지하다시피 통문화론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2년 우루과이의 문학 비평가 앙헬 라마가 『라틴아메리카의 서사적 통문화화』를 출간한 다음부터이다. 앙헬 라마는 '통문화화'라는 용어와 개념을 쿠바의 페르난도 오르티스(1881-1969)에게서 차용, 변형시킨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르티스는 1940년 출간된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에서 처음으로 '통문화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오르티스는 유럽 문화와 -물론 주로 스페인 문화- 아프리카 문화가 만나 상호 동화작용과 상호 반작용을 겪은 후에 탄생한 것이 쿠바 문화라고 규정짓는다. 그리고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문화 전체를 통문화 개념에 의거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통문화론은 오늘날처럼 문화연구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에 제기되었다는 선구자적 가치도 있지만 현재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현재성 중의 하나는 탈식민주의적 독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우석균, 2004).

2) 이브 슈브렐,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2002, 박성창 옮김), 서울: 민음사, p. 51.

잡지 편집인들의 정책", "독서장소들: 대출도서관, 독서실 등", "공적이거나 사적인 제도들의 개입"[3]을 비교문학의 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언어 혹은 문화권 사이의 '중재자'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중재자>란 용어는 물질적 매개체이건 개성의 행위이건 간에 문화적 이행을 조건 짓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4]

본 글은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수교 50년을 넘은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교류, 특히 한국 서적의 브라질 소개 현황과 확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5] 이를 위해 여러 분야에 걸친 세밀한 데이터 분석(예, 출판과정과 유통 경로, 관련 출판계의 성향, 관련 법률, 출판 정책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나 본 글에서는 여러 한계로 인하여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브라질 독서인구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적출판을 통한 한국문화의 브라질 진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 현황

우리나라에서 서적 번역을 통한 우리 문화의 해외전파를 체계화한 시

3) Ibid. op. cit., pp.110~111.

4) 그는 여기서 "제도란 대학(연구와 프로그램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치 권력(외국 작품일 경우에 특별히 강화되는 검열)이나 경제제도(번역권에 관련된 규약)일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Idem., ibid.

5) 양국 간의 서적을 통한 문화교류 문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단지 올해 10월 8일과 9일 사이에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문학번역원 주최 <제2회 세계번역가 대회>에 참석한 브라질 주재 임윤정 씨의 발제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발제 내용을 접하지 못하였으나 주로 브라질의 문인이자 평론가인 아롤두 지 캉푸스(Haroldo de Campos)의 번역 경험을 바탕으로 번역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본 글에서는 브라질문학 혹은 기타 출판물의 한국어 번역 소개는 제외하기로 한다.

점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문학의 세계 전파를 목표로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도 1996년에 문을 열었으며 매년 한국문학의 외국어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민간)도 본 업무를 199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7년을 맞이하였다. 그러한 관계로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시되는 국가들의 언어로 번역이 치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대산문화재단의 경우 199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회씩 총 17회에 걸쳐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지원 사업을 하였는데 1회 때인 1993년 영어와 불어만 지원했으며 2년차에는 영어, 불어, 독일어 그리고 3년차에는 스페인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매년 4개 언어에 국한하고 있다. 즉 본 논문의 주 대상인 브라질의 공용어 포르투갈어로의 번역 지원이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한국문학번역원이 집계한 2008년 한국문학의 저작권 해외 판매를 보더라도 포르투갈어 번역물은 단 한권도 속해 있지 않다.[6)]

---

6) 한국 도서가 외국어로 번역된 역사는 한 세기를 넘어섰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계약 건수도 적지만 분야, 진출 국가도 편중돼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집계한 2008년 국내 저작권의 해외 수출 현황 결과에 따르면, 총 계약 건수 365건 중 아동・만화, 실용・기타가 각각 195건(53%), 148건(41%)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문학과 학술 분야 도서는 각각 13건, 6건에 그쳤다. 이처럼 해외 진출 한국 도서는 그림책과 학습만화, 실용서가 주종을 이룬다. 그림책은 언어 장벽에 구애를 덜 받고, 학습만화는 외국에서는 드문 분야라는 데 이점이 있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 156건(42%), 태국 112건(31%), 프랑스 8건(2%), 미국 3건(0.8%) 등으로 아시아 지역 편중이 뚜렷하다. 최근에는 노벨문학상에 대한 바람 등과 관련해 국내 문학작품의 해외 소개가 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기는 하다. 주로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등의 번역지원에 의존해 고은 시인의 경우 48종이 15개 언어로 번역됐거나 번역 중이고, 소설가 이문열, 이청준, 황석영씨의 작품 각각 50종, 36종, 35종이 외국에 진출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배수아, 김애란씨 등 젊은 작가들의 신작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소설가 신경숙씨의 베스트셀러 <엄마를 부탁해>가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 15개국과 번역판권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기관의 지원 없이 출판사 독자적으로 이뤄낸 성과라 의미있는 것으로 꼽히기도 한다. 백원근 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가 브

게다가 포르투갈어로 번역 소개된 서적들의 수뿐만 아니라 테마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만하다. 2009년 12월 현재까지 집계 가능했던 것을 중심으로 작성된 아래 도표를 보자.[7]

〈도표 1〉 현지에 출판된 한국관련 포르투갈어 서적

번호	원서명 / 번역서명	저자	역자	발행년	장르	Obs.
저서(총 20권)						
1	Negócios na Coréia: Guia Legal para Empresas Brasileiras		.	n/a	경제	
2	Angry	:	.	n/a	일반	만화 6권
3	Estado de Excecão: Venha Ver a Coréia	vários	.	n/a	일반	
4	Coréia: o Novo Japão?	Kang, T. W.	.	n/a	일반	
5	Cinema Contemporâneo da República da Coreia	vários	.	n/a	영화	Portugal
6	Taekwondo: Arte Marcial e Cultura Coreana	Roberto Cardia	.	2007	태권도	
7	Livro de Taekwondo: Guia Prático de Defesa Pessoal	Fábio Goulart	.	n/a	태권도	Portugal
8	Brasil e Coréia do Sul: os(Des)Caminhos da Industrialização	Octaviano Canuto	.	n/a	경제	
9	A Jovem Coreia: Almanaque sobre uma das Imigrações Mais Recente	Yuna Kim	.	2009	일반	
10	Negócios com Japão, Coréia do Sul e China: Economia, Gestão e Relações com o Brasil	Gilmar Masiero	.	2007	경제	
11	Pyongyang - uma Viagem à Coréia do Norte	Guy Delisle	.	2007	일반	

랜드 가치 상승 등으로 세계가 한국의 베스트셀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면서 "마케팅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지원과 세계시장을 의식한 글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912/h2009121622560684210.htm (2010/3/15일 참조)

7) 단행본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소논문이나 기타 학술대회 발표문 등은 제외하였다(예, Maria Ruth Amaral de Sampaio의 "Os coreanos no Bom Retiro"(2009, Projeto Temático São Paulo워크샵 발표문)).

12	Da Imitação à Inovação: a Dinâmica do Aprendizado Tecnológico da Coréia	Linsu Kim	.	2005	경제	
13	Taekwondo: a História	Henrique Corrêa Lopes	.	2009	태권도	
14	Formando Praticantes de Taekwondo	Horácio Lopes, João Sousa, Hugo Pereira	.	n/a	태권도	
15	Taekwondo: o Caminho dos Pés e das Mãos	Fábio Goulart e...	.	n/a	태권도	
16	Cozinha Japonesa e Coreana	Anne Wilson	.	2006	일반	
17	Terapia Koryo Sooji Chim Acunpuntura Coreana da Mão	Taewoo Yu	.	2003	일반	
18	50 Anos de Relações Diplomáticas Brasil-Coreia	Yuna Kim	.	n/a	외교	
19	Coréia - Visões Brasileiras	Samuel pinheiro Guimarães(org)	.	2002	경제	
20	Além do arco íris, a imigração coreana no Brasil	Keum Joa Choi	.	1991	일반	석사논문
21	Coreano - Multimídia - Básico A Avançado: Aprenda tudo	n/a	n/a	n/a	언어	

〈도표 2〉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현지에 소개된 한국서적

번역(총 8권)						
번호	원서명/번역서명	저자	번역자	발행연도	장르	비고
1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배수아	성효정	n/a	소설	번역중
2	김지하 시선-오적-	김지하	문준	n/a	시	출간중
3	한국현대단편문학선집	작가미상	임윤정	n/a	전집, 선집	출간중
4	오감도 외 Olho de Corvo: e outras obras de Yi Sang	이상	임윤정	1999	장르혼합	출간
5	한국현대시선 O Pássaro Que Comeu o Sol: Poesia Moderna da Coréia	한용운 외	임윤정	1993	전집, 선집	출간
6	한국단편소설 Contos Coreanos	김동인 외	루이	1984	전집, 선집	출간
7	한국 시조선 Sijô: Poesia-Canto Coreana Clássica	최충 외	임윤정	1994	전집, 선집	출간

2009년 12월 현재 브라질의 검색엔진인 www.buscape.com.br, www.livcultura.com.br,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등에서 검색, 추출한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서적의 포르투갈어 번역물들 가운데 문학작품(시와 소설)이 가장 많은 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태권도와 경제 부문이 각각 5권으로 2위를 차지하여 전체 서적 28권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언어, 이민사, 외교, 요리, 여행, 연보, 만화 등이 1~2권을 차지하였는데 태권도를 일반으로 분류한다면 실제로는 문학과 경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로의 한국 서적 진출, 다시 말해 번역 서적을 통한 한국문화의 브라질 현지 소개가 어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체계적인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의 서적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공립 기관이 지원한 경우가 단지 7권(28.5%)에 불과함으로써, 비록 역사가 짧지만, 서적 출판을 통한 한국문화의 브라질 소개 상황이 어떠한 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문학번역원이 대산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자신과 기타 개별 기관의 번역지원현황을 모두 합쳐 발표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한국문학번역원은 이것이 잠정적인 수치라고 밝혔다.[8])

〈도표 3〉 한국기관들이 지원하여 번역 소개된 한국서적

언어	합계	순위	전집/선집	시	희곡	소설	수필	평론	동화/동요	신화/전설/민담	장르혼합	기타	문학사	연속간행물
영어	491	1	134	137	8	155	11	0	5	5	14	15	6	1
일본어	352	2	77	55	6	173	7	2	2	2	17	11	0	0
중국어	228	3	32	23	17	142	5	0	0	0	3	3	0	3

8) http://www.klti.or.kr/infor/01_status01.jsp (2010년 3월 16일 참조)

프랑스어	214	4	20	40	15	131	1	0	0	0	5	2	0	0
독일어	162	5	14	43	6	91	2	0	0	0	5	1	0	0
스페인어	90	6	13	33	1	42	0	0	0	0	0	1	0	0
러시아어	87	7	33	9	3	29	1	0	0	0	2	0	0	10
이태리어	28	8	2	3	0	22	1	0	0	0	0	0	0	0
체코어	26	9	5	9	0	10	1	0	0	0	1	0	0	0
폴란드어	17	10	2	1	2	12	0	0	0	0	0	0	0	0
베트남어	17	11	1	3	0	12	0	0	1	0	0	0	0	0
스웨덴어	14	12	0	7	0	7	0	0	0	0	0	0	0	0
불가리아어	10	13	4	1	0	4	0	0	0	1	0	0	0	0
네덜란드어	9	14	1	0	0	6	0	0	0	0	2	0	0	0
몽골어	8	"	3	1	0	4	0	0	0	0	0	0	0	0
루마니아어	8	16	2	4	0	2	0	0	0	0	0	0	0	0
터키어	7	"	1	2	0	4	0	0	0	0	0	0	0	0
힌디어	6	18	2	2	0	2	0	0	0	0	0	0	0	0
말레이-인도네시아어	5	19	1	1	0	3	0	0	0	0	0	0	0	0
세르보-크로아티아어	5	"	1	1	0	3	0	0	0	0	0	0	0	0
아랍어	5	"	2	0	0	3	0	0	0	0	0	0	0	0
포르투갈어	4	22	3	0	0	0	0	0	0	0	1	0	0	0
헝가리어	4	"	0	1	0	3	0	0	0	0	0	0	0	0
노르웨이어	2	24	0	1	1	0	0	0	0	0	0	0	0	0
슬로바키아어	1	"	0	0	0	1	0	0	0	0	0	0	0	0
우크라니아어	1	"	1	0	0	0	0	0	0	0	0	0	0	0

1993년 이래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한 대산문화재단의 2009년 통계에서 보듯이 포르투갈어 지원은 지금까지 4건에 불과한데 이 통계와 앞선 통계(<도표 1, 2>)를 종합해볼 때 다른 언어권에 대한 지원(영어 491, 일본어 352, 중국어 228, 프랑스어 214, 독일어 162, 스페인어 90)에 비하면 국공립 관련 기관의 포르투갈어 번역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출판과 관련한 유관기관들의 재정적인 지원 문제만을 문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능력을 갖춘 전문 번역가의 양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정책이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수요와 재정적인 이유로 일명 특수 언어에 대한 석・박사 과정을 통한 전문 번역가의 양성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다르다. 거두절미하고 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 사용국에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사업은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몰고 오는 장기과제인 만큼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번역가의 양성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도 BRICs의 일원인 브라질의 경우 2014년 월드컵 개최와 2016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어 이 지역으로의 경제적・문화적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국서적의 포르투갈어 번역을 통한 브라질로의 진출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단적인 근거로써, <도표, 1, 2, 3>에서 보았듯이 체계적인 한국문화를 전파하는데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역사관련 서적이 단 한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문학번역원이나 대산문화재단이 주로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뒤집어보면 연구자가 거론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다시 드러난다. 즉, 현재의 문제를 단기적인 시장성과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존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아직도 우리의 인식 속에 주변국가라는 이미지로 남아있는 브라질로의 서적번역을 통한 한국문화전파 사업이란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나설 수 있는 기획이 아니기에 더욱 더 국가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Ⅲ. 브라질의 책 시장

흔히들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정도가 되면 문화부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런데 2007년 이래 브라질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US$10,000(CIA World Factbook)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9] 이것은 이제 브라질 국민의 주 관심이 생계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기임을 뜻한다. 그것은 자국문화뿐만 아니라 외국문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만큼 책을 포함한 브라질로의 우리나라 문화 진출이 본격화되어도 괜찮을 시기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브라질 독서인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우선 2007년 하반기에 조사되어 2008년에 발표된 <브라질 독서 현황 Retratos da Leitura no Brasil>[10]을 보자.

브라질국민의 독서에 대한 인식, 독서자와 비독서자[11]의 프로필 규명, 독서자의 선호 경향 분석, 독서를 하게 되는 채널 및 주요 장애들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자료에서 제일 먼저 관

---

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r.html(2010년 4월 5일 접속). CIA의 추정치에 의하면 브라질 2007년 10,000불, 2008년 10,300불, 2009년 10,200불을 각각 기록하였다고 한다.

10) CBL/Snel/Abrelivros등 3개 단체에 의해 지난 2000/2001년 사이에 실시된 이후 2007년 11월 29일 ~ 12월 14일 사이에 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오차범위는 최고 1.4%에 95%의 신뢰도를 가진 조사이다. 동 기간에 브라질 전역의 311개 市(모든 州都와 메트로폴리탄 포함)를 가정방문을 통해 5,012명이 응답했으며 60개 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각 응답자가 소비한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였다. 조사 대상자는 5세 이상의 남녀들로서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은 브라질 각 행정단위별 인구비율에 따라 그 수가 정해졌었다. 또한 이 조사는 독서한 책의 질을 따지거나 이해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11) 동 조사에서는 독서인구를 최근 3개월간 최소한 1권의 책을 읽은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비록 3개월 이전에 책을 읽었으나 최근 3개월에 한권도 읽지 않았다면 비독서자로 분류되었다. 본 논문에서도 브라질의 독서인구에 대한 정의 기준을 여기에 따른 것이다.

심을 끄는 대목은 브라질 독자들의 독서에 대한 인식이다.

1. 독서에 대한 인식

아래 도표에서 브라질 국민들에게 독서가 의미하는 바는 먼저 지식습득(26%)이며 두 번째로는 독서를 중요한 무언가로 생각한다는 것과 전문 직업관련 지식을 쌓는다는 것(각각 8%), 지혜와 문화적 발전에 중요하다(각 5%)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복수로 답변하였을 때 첫 번째로는 삶을 위한 지식의 원천(43%), 일반지식과 직업 관련 지식의 업데이트를 위한 원천(17%), 학교에서의 지식의 원천(10%), 흥미로운 활동이자 기쁨을 주는 것(각 8%)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26%(4,570만 명)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여가 시간 활용에 있어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2]

〈도표 4〉 브라질인들에게 독서가 갖는 의미(즉각적인 단일 답변)

독서가 의미하는 것	비율(%)
지식	26
무언가 중요한 것	8
직업관련 지식	8
지혜	5
문화적 발전	5

12) 흥미로운 점을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과 브라질 국민 모두 여가시간을 TV시청에 상당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음악이 생활 속 깊이 침투한 것을 반영하듯 음악듣기가 2위에 든 반면 우리나라는 10위를, 그리고 인터넷 서핑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1가구당 1선에 육박하는 것을 반영하듯 2위를 차지한 반면에 브라질은 4가구당 1선의 인터넷 보급률을 반영하듯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중요성	4
기쁨	4
교양 증진	4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2
지능	1
정보	1
업데이트	1
새로운 장소	1
커뮤니케이션	1
기타	1
부정적인 응답	1
모른다거나 의견제시 거부	26

〈도표 5〉 브라질인들에게 독서가 갖는 의미(유도된 복수 답변)

독서의 의미	비율(%)
삶을 위한 지식의 원천	42
일반지식과 직업상 관련 지식의 업데이트를 위한 원천	17
학교/대학에서 지식의 원천	10
흥미로운 활동 중 하나	8
기쁨을 주는 활동 중 하나	8
의무적 실천행위	3
피곤하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그 무엇	2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 무엇	2
권태로운 활동	1
기타/모른다/의견제시 거부	6

〈도표 6〉 브라질 국민의 여가 시간 이용(한국과의 비교)[13]

순위	브라질	%	한국[14]	%
1	TV보기	77	TV보기	30.4
2	음악듣기	53	인터넷하기	13.2
3	휴식	50	수면/휴식	11.5

13) 브라질 경우는 1인이 복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서의 대상으로써 신문과 잡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4	라디오듣기	39	모임/만남	5.8
5	독서하기	35	집안일	4.6
6	친구들과 외출하기	33	운동하기	4.4
7	친구들이나 가족과 만나기	31	책읽기	4.1
8	비디오보기	29	신문/잡지읽기	3.5
9	쇼핑하기	24	영화보기	3.4
10	스포츠하기	24	음악듣기	3.4
11	글쓰기 혹은 편지쓰기	20	게임하기	3.2
12	공원이나 광장 산책	19	종교활동	2.4
13	시골이나 해변 가기	18	쇼핑/아이쇼핑	1.7
14	인터넷하기	18	휴대전화이용	1.6
15	도시에 가기	15	개인취미활동	1.4
16	스포츠행사 참관	14	리디오듣기	1.3
17	바에 가거나 당구치기	14	스포츠경기 관람	1.2
Obs. 브라질은 복수의 답변을 허용한 반면 우리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측의 한국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pdf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물론 독서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휴식시간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독서의 전통적인 관념이라고 한다면, 전체 응답자의 77%가 TV를 보는 반면에 책을 본다고 한 사람이 35%에 그치고 있는 것은, 독서에 대한 인식의 비율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독서에 대하여 브라질 국민은 큰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15] 그런데 우리와 비교했을 때 브라질은 독서[16]가 5번째 순위를 기록한 반면 우리의 경우는 7~8위(책읽기 7위, 신문 잡지읽기 8위)를 기록함으로써 브라질 국민이 우리 국민보다

1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2009), 『2009_국민독서_실태조사』, p.113. (http://www.mcst.go.kr/web/dataCourt/statisticsData/statisticsView.jsp 2010 3월 15일 접속)

15) 동 조사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부족(54%), 다른 여가(34%), 무관심(19%), 책 구매비용 부족(18%), 주변에 도서관 부재(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6) 브라질의 조사 경우 독서의 범주에 책, 신문, 잡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여가시간에 활자화된 텍스트를 읽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17]

어쨌든 도표에서 보듯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질문에서 브라질 국민의 77%가 TV를 지목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라디오가 39%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중매체에 대한 이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독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TV 시청 등, 후에 보겠지만, 시각적인 선호도가 높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 문학 서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한다든가 브라질과 한국 작가들의 대담, 문학기행 등을 위한 다양한 채널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브라질 독서자들의 취향

아래의 4개 도표(<도표 7~10>)에서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은 남녀, 연령, 학력을 불문하고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장르가 성경이라는 것이다. 전체 국민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교육 관련서(교과서)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책을 봐야 하는 학생신분 계층 때문으로 보여 이 부분에서는 책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32%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설의 경우 남녀별로는 17% : 44%로 여성이 소설을 더 많이 읽고, 학력별로는 초・중・고・대졸 혹은 재학생이 각각 15%, 29%, 38%, 43%로 학력이 높을수록 소설을 많이 읽으며, 연령별로는 18~24세가 가장 높은 47%를

17) 또한 복수의 답변을 허용한 브라질의 이 조사에서는 젊은 층에서 학력이 높은 여성층이 독서 인구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나타내어 젊은 청소년층이 소설을 가장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설은 14세 이후의 연령층에서 30~40%의 선호도를 보임으로써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장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소설의 경우 14세 이후 여성과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소설에 이어 순수문학 측면에서 4위(31%)를 차지한 아동문학의 경우, 남녀별로는 25% : 35%, 학력별로는 초・중・고・대졸 혹은 재학생이 각각 53%, 25%, 20%, 17%로 나타났다. 장르가 장르인 만큼 5~10세 사이의 연령층이 77%, 11~13세의 연령층이 44%, 남녀별로는 각각 25%, 36%를 차지하여 초・중등생들 중에서도 여성이 아동문학의 주 소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문학의 경우 5~10세의 아동층이 주 소비층이며 이 가운데서도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28%를 차지한 시집(詩集)의 경우는 남녀별로 각각 22%, 32%를, 연령별로는 11~13세, 14~17세가 각각 41%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남녀 공히 40세~59세까지 20%이하의 수준에 머물다가 60대에서는 30%, 70세 이상에서는 28%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40~59세 사이에서 시에 대한 비중이 낮아진 것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으로 보이며(각주 15 참조) 그 이후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다시 詩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詩의 경우를 요약하자면 중・고등학교 연령층이 주 소비층이며 그 가운데서도 여성이 높지만 이 계층의 경우 학교 수업이나 고・대입 수험생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퇴직 등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60대부터 詩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도표 7〉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장르

성경	45%
학교교재	34%
소설	32%
아동문학	31%
시집	28%
만화	27%
종교서적	27%
역사, 정치 및 사회과학서	23%
단편소설	20%
백과사전 및 일반사전	17%
청소년문학	15%
자서전	14%
자기계발서	13%
요리/고예/실용적인 테마를 다루는 책	12%
기술서적	12%
예술	10%
수필, 과학, 인류학 서적	7%
기타	3%
전혀 읽지 않음	3%

그리고 청소년문학 경우 사전이나 백과사전보다 낮은 15%의 선호도를 나타내어 11위에 그쳤는데 남녀 비율로 볼 때 각각 14%와 17%를 기록,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14~17세 때 정점(31%)을 이루었다가 18세부터는 10%대 초반으로 급락함을 엿볼 수 있다. 이것도 대입 이후나 아니면 고・대입 시험을 준비 중인 청소년일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후의 연령에 들어서면 소설 등으로 그 선호도가 옮겨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콩트의 경우 5세부터 29세까지 줄곧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도 남성(16%)보다는 여성(23%)이 더 두터운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콩트의 경우 재학 유무를 떠나 30세 이전의 젊은 층이 주로 선호하는 장르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장편보다는 단편을 선호하는 것은 단시간에 읽을 수 있는 소재를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만화의 선호도에서도 입증된다.

이 4개의 도표들(<도표 7~10)>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만화의 경우인데 이 장르는 소설, 아동문학, 시집 다음으로 27%에 달하는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다. 즉 성경이외의 종교서적과 같은 선호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학과 콩트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만화는 남녀가 각각 28%, 26%를 차지, 특이하게도 남성이 약간 앞서고 있으며 30대 연령층에서도 20%의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을 앞에서 살펴본 콩트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브라질 국민의 주된 독서습관이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콩트와 만화의 높은 선호도, 특히 콩트가 재학 중인 아닌 층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만화 역시 학력에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30대에서도 20%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는 것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흥미위주의 독서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여가 시간에 TV 시청 선호율이 높은 그들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도표 8〉 남녀별 가장 많이 읽는 장르

장르	남	녀
성경	40%	49%
학교교재	36%	32%
소설	17%	44%
아동문학	25%	36%
시집	22%	32%
만화	28%	26%
종교서적	23%	30%
역사, 정치 및 사회과학서	27%	19%
단편소설	16%	23%
백과사전 및 일반사전	17%	17%
청소년문학	14%	17%

자서전	15%	14%
자기계발서	10%	15%
요리/공예/실용서적	4%	19%
기술서적	16%	8%
예술	11%	10%
수필, 과학, 인류학 서적	7%	7%

〈도표 9〉 학력별 가장 많이 읽는 장르

장르	초등학교 4학년까지	5,6학년 까지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경	49%	44%	48%	35%
학교교재	34%	31%	28%	49%
소설	15%	29%	48%	43%
아동문학	53%	25%	20%	17%
시집	24%	35%	27%	21%
만화	36%	27%	23%	16%
종교서적	25%	23%	34%	26%
역사, 정치 및 사회과학서	15%	18%	28%	37%
단편소설	18%	19%	22%	20%
백과사전 및 일반사전	10%	14%	24%	24%
청소년문학	13%	20%	16%	11%
자서전	5%	10%	19%	30%
자기계발서	4%	7%	21%	29%
요리/공예/실용서적	9%	10%	18%	16%
기술서적	2%	7%	16%	34%
예술	10%	12%	10%	10%
수필, 과학, 인류학 서적	4%	4%	9%	15%

〈도표 10〉 연령별 가장 많이 읽는 장르(%)

장르 \ 연령	5~10	11~13	14~17	18~24	25~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성경	38	33	36	36	49	55	55	58	66	75
학교교재	45	47	50	37	31	27	21	13	6	4
소설	5	15	41	47	40	36	39	38	35	37
아동문학	77	44	20	16	24	23	19	13	21	7

시집	23	41	41	29	22	25	19	15	30	28
만화	48	44	30	21	22	20	13	15	14	9
종교서적	13	15	18	22	31	39	33	45	51	48
역사/정치/ 사회과학서	14	19	21	27	32	25	23	26	29	19
단편소설	23	25	24	21	20	18	15	16	10	5
백과사전/ 일반사전	11	16	20	20	21	21	17	13	11	7
청소년문학	15	28	31	13	13	10	10	5	10	4
자서전	4	8	11	17	19	19	21	16	22	15
자기계발서	1	2	9	17	16	20	23	21	19	10
요리/공예/실용서적	2	3	6	10	18	23	20	20	25	15
기술서적	2	4	10	16	18	20	16	15	6	8
예술	11	15	14	10	8	8	9	8	12	4
수필/과학/인류학 서적	4	5	6	8	9	8	9	9	4	2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브라질 사람들은 문학의 경우 소설, 아동 문학, 시, (만화), 콩트, 청소년 문학 순의 선호도를 갖고 있으며 남녀의 선호도가 만화(28%, 26%)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적번역과 출판을 통한 한국문화의 브라질 전파를 시도함에 있어서는 소설과 시 중심의 전략을 취하되 시간의 구애를 덜 받는 단편소설과 만화 부문도 함께 고려해봄직 할 것이다. 특히 만화의 경우, 여가 시간에 TV 시청 선호도(77%)와 더불어 시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독특한 개성을 엿볼 수 있으며 문학소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브라질 국민의 이러한 특성(즉, 시각성이 강한 만화나 TV 시청 그리고 단편문학 선호 등)은 그들이 책을 선택하는 방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3. 책 선택 방식

〈도표 11〉 책 선택에 있어서 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테마	63
책 제목	46
다른 사람들의 의견	42
작가	33
표지	23
비평/요약	13
광고	12
출판사	7
기타	2
책을 선별해 읽지 않는다	9

위의 도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브라질 독자의 경우 읽을 책의 선택에 있어서 책의 테마를 가장 중시하며(63%) 이어 제목(46%), 다른 사람들의 말(42%), 작가에의 충실도(33%)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비평이나 요약 소개서가 13%, 광고가 12%를 차지한 반면에 책의 표지가 이를 앞서 23%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브라질 독서인구의 이러한 성향을 통해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브라질 국민은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책을 선택하되, 비평이나 요약서보다는 주변 인물들의 추천과 작가의 이름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둘째, 요약소개서나 광고보다도 책의 표지를 더 중시한다는 점, 다시 말해 책의 시각적인 첫 인상 효과가 비평이나 광고의 두 배를 넘는다는 것은 브라질 국민의 남다른 시각성 선호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18) 아울러 이 도표를 볼 때 주목할 점은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우 테마와 제목을 우선순위에 두는 반면에, 저학력의 저소득층은 작가를 본다는 점이다.

4. 출판물의 종류별 독서율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아래 도표에서 본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브라질 독서인구의 인터넷을 통한 출판물 독서 비중이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그들 가운데 9%는 매일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문학작품 이외의 것도 포함)를 읽으며 8%는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3%는 한 달에 한 번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를 본다.

물론 이것은 전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초고속인터넷이 설치된 우리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브라질 가정의 인터넷 설치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19]에서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를 접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미국과 서구 유럽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브라질 시장에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현존하는 전파매체들 가운데 가장 확산력이 높은 문화 전파 매체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브라질 국민의 시각적 선호도(예, 여가 시간에 TV 시청률, 만화 비중 등)를 고려할 경우 TV와 더불어 우리 문화의 브라질 시장 진입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12〉 독서의 대상이 되는 출판물의 유형과 그 비율

출판물의 유형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잡지	14	27	11
일반서적	15	21	14

19)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2008년 말 현재 전체 가구(5,760만 가구)의 31.2%인 1,795만 가구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이 연결된 가구는 1,370만 가구(23.8%)였다. 이 수치는 2007년 말에 비하여 260만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http://g1.globo.com/Noticias/Tecnologia/0,,MRP1308964-6174,00.html 2009 12월 1일 접속)

신문	20	22	7
학교가 지정한 책	15	13	6
학교텍스트	15	11	3
만화(Gibis)	6	10	6
인터넷상의 텍스트	9	8	3
업무관련 텍스트	7	6	2
디지털화 된 텍스트(e-book)	1	1	1
오디오북	0	1	1
점자서적	0	0	0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매체별로 독자가 출판물 독서에 투자하는 시간(각 유형의 책을 읽는 사람 당)'에서도 발견된다.

〈도표 13〉

출판물의 유형	**비율(인구 수)**	**투자 시간**
인터넷 텍스트	30(2,890만 명)	2시간 24분
학교에서 추천한 책	54(5,150만 명)	2시간 12분
오디오북	3(280만 명)	2시간 11분
업무관련 텍스트	25(2,180만 명)	2시간 9분
책	47(4,500만 명)	1시간 56분
학교텍스트	74(7,071만 명)	1시간 55분
점자서적	0.4(37만 5천 명)	1시간 46분
E-book	4(420만 명)	1시간 37분
신문	57(5,470만 명)	1시간 21분
잡지	69(6,550만 명)	1시간 16분
만화	34(3,200만 명)	1시간 9분
* 독서 소요시간은 독서자가 밝힌 시간임.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질 독서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인터넷 텍스트이며 여기에 학교에서 추천한 도서나 오디오북, 업무관련 텍스트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Ⅳ. 인터넷의 가능성

따라서 이 장에서는 번역 서적 혹은 포르투갈어 직접 저술을 통한 우리문화의 브라질 진출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앞의 결론을 보다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현 브라질 인터넷 상황과 여타 독서 인구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한 영토의 86배가 넘는 브라질에서 책의 홍보와 유통은 많은 시간과 공간을 요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은 전파를 이용하는 매체의 활용이외에는 큰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매체들 가운데에서도 인터넷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매체로써 이미 포화상태인 TV보다는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2009년 12월 브라질의 *Ibope Nielsen Online* 조사기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20] 2009년 12월 현재 16세 이상의 브라질 사람들 가운데 조사 시점 3개월 이전부터 조사시점까지 최소한 1차례 이상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이하 이 범주의 사람을 인터넷 이용자로 칭함)의 수는 총 6,7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정, 학교, 직장, 랜하우스(우리나라의 PC방), 도서관 혹은 텔레센터(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민간점포) 등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인구를 합한 수인데 이것은 브라질이 같은 해 9월에 비하여 무려 120만 명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수에서도 세계 5위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만을 구분할 경우 2009년 말 현재 4700만 명인 것으로 나

20) http://www.tobeguarany.com/internet_no_brasil.php (2010년 4월 5일 접속)

타났다. 이 수치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하여 2009년 인터넷 사용자는 8.2% 증가한 셈이다.[21]

또한 이 조사에 의하면 브라질 전체 인터넷 이용자를 도시와 농촌 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도시지역 전체 인구의 44%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으며 브라질 기업의 97%가 인터넷을 그리고 브라질 전체 가정의 23.8%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는 총 2,750만 명으로 밝혀졌는데 만일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까지 합친다면 이 숫자는 2009년 7월 현재 약 3,640만 명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는 38%에 이르며 1주일에 4~6회 접속하는 자는 10%, 2~3회 접속하는 사람은 21%, 1주일에 1회 접속하는 자는 18%를 기록,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87%가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

21) 한편 인터넷 인구의 증가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컴퓨터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FGV(Fundação Getúlio Varga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한해에만 브라질에서 총 1,220만대의 컴퓨터가 팔려 2008년 말 현재 브라질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는 6,000만대인데 이것은 브라질 인구 3명당 한 명 꼴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FGV는 2012년경이면 브라질 내 컴퓨터 수가 1억 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http://g1.globo.com/Noticias/Tecnologia/0,,MUL1167875-6174,00.html (2009년 12월 1일 접속).

22) 브라질의 경우 여러 조사기관에서 인터넷 사용 현황을 조사 발표하는 관계로 자료의 편차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의 경우 정부의 공식 발표로 인정을 하지만 조사 대상과 시기가 다소 늦은 관계로 다른 자료의 참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 11일 발표된, 브라질지리통계원(IBGE)의 2008년 전국표본가정조사(Pnad)에 따르면 2008년 11세 이상의 브라질인 5,6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브라질인터넷관리위원회(CGI.br)의 발표와 상반되는 것으로써 CGI.br은 2008년 11세 이상 브라질 인터넷 인구가 전체 인구의 39%인 6,300만 명이라고 밝혔다. IBGE측은 또 랜하우스(우리나라의 PC방)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으나 CGI.br측은 랜 하우스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정에서의 접속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http://tecnoblog.net/11399/ibge-56-milhoes-de-internautas-no-brasil/ (2010년 4월 19일 접속).

또한 *Ibope Nielsen Online*에 의하면[23] 2009년 7월 현재 브라질 인터넷 이용자의 평균 접속시간이 48.26시간으로써 이것은 인터넷 사이트 접속만을 계산한 경우이고 만일 MSN, Emule, Torrent, Skype와 같이 메일 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화상 통화 등의 접속 시간도 포함시킬 경우 인터넷상에서의 체류시간은 71.30시간으로 늘어난다. 어쨌든 사이트 접속만을 계산할 경우 브라질은 세계 1위로써 이어 미국(42.19시간), 영국(36.30시간), 프랑스(33.22시간), 일본(31.55시간), 스페인(31.45시간), 독일(30.25시간), 이탈리아(28.15시간), 호주(23.45시간)이 뒤를 따르고 있다. 나아가 동 조사기관은 소득별로 A~E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중간계층인 C계층의 경우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브라질 국민의 지속적인 컴퓨터 소유 증가세(각주 21 참조)와 접속시간 증가 그리고 인터넷 인구의 증가는 전자상거래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인터넷 상거래 조사기관인 Webshoppers에 의하면[24] 2009년 브라질의 전자상거래는 2008년에 비해 30%나 증가한 106억 헤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의 수도 1,76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1/3이 전자상거래를 하였는바, 올해 말에는 2,300만여 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거래액도 2009년보다 28.3% 늘어난 136억 헤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2009년 전자상거래 중에서 최고의 비중을 차지한 것이 책 구매와 신문 및 잡지 구독으로써 전체 인터넷 판매의 20%를 차지했다는 것이다.[25] 비록 인터넷을 통

23) http://g1.globo.com/Noticias/Tecnologia/0,,MUL1274233-6174,00.html (2009년 12월 1일 접속).

24) http://idgnow.uol.com.br/internet/2010/03/16/e-commerce-brasileiro-faturou-r-10-6-bilhoes-em-2009/ (2010년 4월 5일 접속)

25) Webshopper에 의하면 2위는 건강・미용・의약품으로써 13%를 차지하였으며 가전제품은 11% 그리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9%, 기타 전자제품이 6%를 차지하였다.

한 책 구매가 2009년 현재 29.9%(주석 26 참조)에 이른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인터넷 보급률을 고려할 때면 브라질 국민의 인터넷을 통한 서적 구매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 책을 접하는 방식

이러한 인터넷 현황을 고려하면서 아래의 도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면, 비록 2007년의 수치이지만, 브라질 독서 인구 가운데 7%가 인터넷에서 무료 다운로드 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사가게에서 복사하여 보는 비율보다 다소 높으며 매체에 대한 충실도에서는 최고인 68%를 기록하고 있다.

〈도표 14〉 책을 접하는 주요 방식

방식	비율(%)	사람 수(백만 명)	항상	가끔
다른 사람에게 빌림	45	43,324,305	52	48
구매	45	42,876,751	51	49
도서관(학교도서관 포함)에서 대출	34	32,450,490	62	38
선물로 받음	24	22,860,009	41	59
정부 and/or 학교가 제공	20	18,684,185	67	33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7	7,017,384	68	32
복사	7	6,273,477	60	40
무응답	4	4,245,858	-	-
* 독서자만이 응답한 자료임.				

그리고 아래의 <도표 15>에서 보면 소득이 중간 이상이며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 A, B, C 계층이 모두 10% 전후하여 인터넷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다운 받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도 경제적 여건이 나은 남동부, 남부, 중서부가 두드러진다. 연령층으로는 미래의 독서가

들이자 인터넷 시대를 장악할 14~29세가 앞지르고 있어서 이들의 선호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표 15〉 사회계층에 따라 책을 접하는 주요 방식

방식＼계층	A계층	B계층	C계층	D계층	E계층
구매	73%	65%	48%	32%	27%
복사	5%	8%	8%	5%	2%
선물로 받음	30%	30%	21%	24%	25%
도서관 대출(학교도서관 포함)	24%	31%	37%	33%	22%
개인끼리 빌려봄	35%	47%	46%	44%	49%
정부나 학교가 제공	3%	11%	15%	29%	40%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10%	13%	9%	3%	3%
책 읽는 습관이 없음	5%	6%	5%	44%	0%

〈도표 16〉 지역별로 책을 접하는 주요 방식

방식＼계층	북부	북동부	남동부	남부	중서부
구매	39%	39%	47%	50%	51%
복사	7%	6%	5%	6%	10%
선물로 받음	27%	23%	24%	17%	35%
도서관 대출(학교도서관 포함)	37%	29%	33%	45%	31%
개인끼리 빌려봄	51%	50%	42%	41%	50%
정부나 학교가 제공	34%	37%	11%	12%	13%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5%	6%	8%	7%	11%
책 읽는 습관이 없음	0%	1%	9%	1%	1%

〈도표 17〉 연령에 따라 책을 접하는 주요 방식

방식＼계층	5-10	11-13	14-17	18-24	25-29	30-39	40-49	50-59	60-69	70 이상
구매	33	29	37	46	55	52	55	59	53	44
복사	3	4	6	11	14	8	4	6	4	2
선물로 받음	25	19	25	20	20	22	27	29	38	31
도서관 대출 (학교도서관 포함)	49	53	47	36	20	26	20	19	10	8

개인끼리 빌려봄	29	31	43	56	56	53	51	49	46	52
정부나 학교가 제공	35	30	30	14	11	11	12	11	6	4
인터넷 무료다운로드	3	7	15	12	11	6	3	4	2	0
책 읽는 습관이 없음	1	3	2	3	4	9	7	6	6	11

2. 책 구매 채널

여기서도 인터넷을 주목해서 보면 2007년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서적 구매가 4%로써, 전통적인 서점에서의 구매에는 한참 뒤지지만 360만 건의 구매가 이루어져 그들의 경제적, 통신 환경적 관점에서는 적은 규모라고 보기 힘들다.[26] 나아가 이미 보았듯이 2009년의 경우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중에서 최고의 비중을 차지한 것이 책 구매와 신문 및 잡지 구독으로써 전체 인터넷 판매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18〉 책 구매 채널

채절	인구수	비율(%)
서점	3,200만명	35
신문가판대	1,730만명	19
헌책방	820만명	9
책전시회	810만명	9
교회	590만명	6
슈퍼마켓	430만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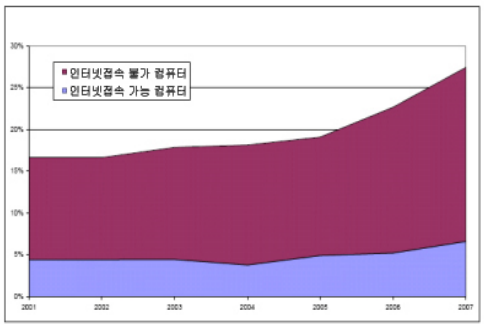
26) 물론 인테넷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서인구의 "인터넷서점 이용 비율은 '04년 22.4% → '06년 28.1% → '07년 32.2% → 08년 27.8% → '09년 29.9%로 '08년 대비 (2009년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인터넷 서점 이용률을 비교해 보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연간 독서량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인터넷서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08년과 동일한 경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한 비율은 '2-3개월 1회'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1-2회' 25.4%, '연2-3회' 23.1%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p. 152.

행상인	410만명	4
인터넷	360만명	4
학교	330만명	4
참고: 1) 백화점, 방문판매원, 기타가 각각 2%, 2%, 1%를 차지함 2) 일인이 다수 매체를 선택 가능토록 함 3) 학교가 지정한 도서의 경우 학교에서 구매되는 비율이 2위를 차지함 (책 전시회가 2위) 4) 소도시의 경우 교회와 학교 그리고 방문판매가 주요 역할을 함		

3. 지역별 독서량

우선 브라질 전체의 인터넷 사용 인구를 보자. 아래 도표를 보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브라질 독서인구 현황이 조사된 2007년 현재 27.4%에 달했다. 즉 4가구 당 1가구에 컴퓨터가 있다는 의미로써, 아래 도표의 주석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록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아도, 4명당 1명이 디지털화 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문화(특히,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홍보 및 공급)의 전파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도표 19〉 컴퓨터 소유와 인터넷 접속 가정 비율



출처: IBGE, microdados das PNADs 2001/2007.

그런데 최근의 통계는 더 고무적이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인 브라질 인터넷관리 위원회의 정보 및 조정 분과(Nic.br)가 2010년 4월 5일 발표한 <2009년 가정의 인터넷 사용현황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 가정의 수는, 2008년의 1,390만 가구(25%)를 훨씬 뛰어 넘은 1,830만 가구로써 이는 총 가구의 32%에 해당한다.[27]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래 <도표 20, 21>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접속속도(또는 인터넷 가능 컴퓨터 수)가 지역인구 1인당 연간독서량과 비례하며 이것은 다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28] 즉 초고속 인터넷의 사용은 소득 격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인터넷 사용인구의 비율이 지역적으로도 큰 편차를 드러내느데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초고속 인터넷은 남동부 이하에 주로 몰려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독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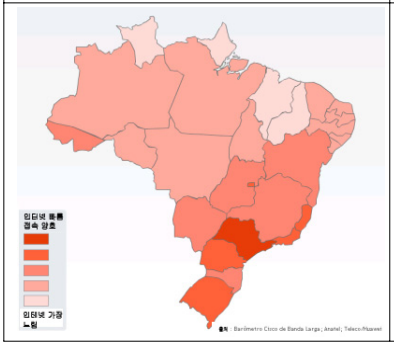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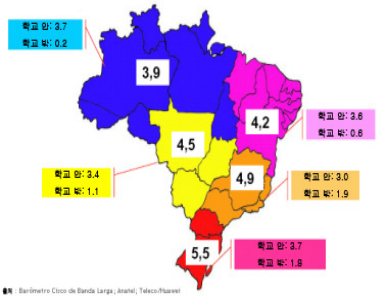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우리문화의 전파를 확산시키고자 할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는 우선 수도인 브라질리아를 위시하여 리우데자네이루 이남 지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27) 2008년 6월 현재 브라질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이 1,004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2007년 6월에 비하여 48%나 증가한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브라질의 경우 초당 54Kbps를 초과하는 속도의 인터넷을 모두 초고속 인터넷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http://g1.globo.com/Noticias/Tecnologia/0,,MUL730922-6174,00.html (2009년 12월 1일 접속).

28) http://www.skyscrapercity.com/showthread.php?t=977134를 참고할 것. 이 사이트에는 2009년 브라질지리통계청의 지역별 각종 경제-사회-문화 지표들을 소개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접속).

29) http://www.anl.org.br/pdf/o_livro_no_orcamento_familiar.pdf (2010년 3월 20일 접속). 이 자료는 2002~2003년 IBGE의 자료에 근거하여 2007년 발표된 것이다.

〈도표 20〉 지역별 고속인터넷 사용현황(짙은 색일수록 인터넷빠름)	〈도표 21〉 2008년 브라질 지역별 인구당 독서량(네모안의 숫자)
	

Ⅴ. 나오는 글

결론을 맺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발표된 <브라질 독서 현황>에 따르면 비독서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30대로서 15%를 차지하였으며 40대는 15%, 50대는 13% 그리고 60대는 11%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즉 역설적으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독서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가족 소득과 사회계층과도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예를 들면 가족 소득이 최저임금 10배 이상인 상위층 경우 단지 1%만이 무독서자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높은 구매력이 열렬한 독서인구로 만드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서인구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예를 들면 대학 이상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기술관련 서적(35%), 역사, 정치, 사회학 관련 서적(37%), 에세이와 인문학(15%), 자서전(30%)을 주로 선호하며 모두 평균치 이상을 나타냈다. 한 가지 흥

미로운 사실은 이들의 경우 인터넷 사용빈도(31%)가 높다는 것이다. 즉, 오피니언 리더에 속하는 동 계층을 겨냥한 인터넷 활용 (이들은 책의 원본보다는 복사하여 보는 비율이 여타 계층의 평균치보다 높은 19%를 차지하였다) 역시 유효한 문화적 전파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유념해야할 것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20%가 서적 구매 관련이었다는 것과, 2000년~2007년 사이에 독서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거의 모든 분석에서 독서인구의 선호도에서 종교관련 서적을 제치고 시집(詩集)이 앞서기 시작한 점 등이다.

결론을 맺자면 브라질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문화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10,000불 수준인 상황이기에, 서적의 번역과 출판을 통한 우리 문화의 브라질 소개가 아직 많은 어려운 점을 안고 있을지라도, 브라질 현지 독자들의 남녀, 연령별, 학력별 선호도 분석과 구매 채널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을 세우면 지금도 공간은 열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브라질은 인터넷 등 사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인바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도 이러한 인터넷 매체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이상의 계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소설에 주목하면서, 브라질 국민 특유의 높은 시각성 선호 경향을 활용한 전략(예, TV, 만화 등)도 유효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교 서적들이 뒤로 처지고 詩가 앞서기 시작한 점, 성별 선호도, 지역별 구매력 등을 감안하면서, 유통체계와 관련 법규 연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컨텐츠 준비가 필수이며 이것은,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공립 기관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한 번역 전문가 양성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연구소(2009),『2009_국민독서_실태조사』, pdf 파일.

우석균(2004),『페르난도 오르티스의 통문화론과 탈식민주의』, (http://www.latin21.com)

이브 슈브렐(2002),『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박성창 옮김), 서울: 민음사.

Amaral de Sampaio, Maria Ruth (2009). "Os coreanos no Bom Retiro" (Projeto Temático São Paulo 워크샵 발표문)

Ianni, Octávio(2003). *Enigmas da Modernidade-mundo*,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Instituto Pró-Livro(2008). *Retratos da Leitura no Brasil* (pdf 파일).

Ortiz, Renato(1988). *A Moderna Tradição Brasileira*. São Paulo: Brasiliense.

_____(2000). *Mundialização e Cultura*, São Paulo: Brasiliense

인터넷

www.klti.or.kr(한국문학번역원)

www.daesan.or.kr(대산문화재단)

www.ibge.gov.br(브라질 지리 통계원)

www.buscape.com.br(브라질 검색엔진)

www.livcultura.com.br(브라질 온라인 서점)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912/h2009121622560684210.htm

http://www.klti.or.kr/infor/01_status01.jsp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r.html

http://g1.globo.com/Noticias/Tecnologia/0,,MRP1308964-6174,00.html
http://www.tobeguarany.com/internet_no_brasil.php
http://tecnoblog.net/11399/ibge-56-milhoes-de-internautas-no-brasil/
http://idgnow.uol.com.br/internet/2010/03/16/e-commerce-brasileiro-faturou-r-10-6-bilhoes-em-2009/
http://www.skyscrapercity.com/showthread.php?t=977134
http://www.anl.org.br/pdf/o_livro_no_orcamento_familiar.pdf

논문투고일자: 2010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